

조달청, 화학제품 시험비용 줄인다!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기업 대상 ... 화학시험연구원 검사비용 인하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시험검사 부담이 줄어든다.

조달청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12월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하려는 조달기업이 화학시험연구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면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해당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검사는 시험검사에서 면제된다.

그동안 공공 종합쇼핑몰인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면 규격서와 함께 품질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 영세기업은 적지 않은 부담을 받아왔다.

조달청은 앞서 11월4일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도 같은 업무협력 약정을 맺었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는 강화하면서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17>